

건설사 시공능력 '톱100'에 광주·전남 10개사

금호 18·우미 45·중흥 63·금광 65위

남화토건·동광건설 2곳 새롭게 진입

금호산업과 호반건설, 중흥건설 등 광주·전남지역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10개사가 올해 전국 종합건설업체 시 공능력평가에서 100위권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남은 9개사를 보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00위권 건설업체가 등록됐다.

대한건설협회는 30일 전국 1만218개 종합건설업체의 공사실적과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업체별 시공능력을 산정한 결과, 금호산업(18위·전남), 호반건설(24위·광주), 우미건설(45위·전남), 중흥건설(63위·전남), 금광기업(65위·전남),

남양건설(74위·전남), 라인(76위·전남), 남화토건(91위·전남), 동광건설(94위·전남), 남해종합개발(96위·전남) 등 10개사가 시공능력평가에 상위 100개사에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금호산업은 올해 토건사 공능력평가 액 1조9171억6000만원으로, 상위 100개사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2계단 내려앉았지만 광주·전남 건설업체 중 1위를 수상했다. 호반건설은 1조7152억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계단 상승했으며 우미건설은 6433억7900만원으로 2계단 뛰어오르며 전국 상위 100개사 중 50위권에 턱걸이했다.

■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기액 상위 100개사 광주전남지역 업체 현황

(단위: 백만원)

업체명	2013년 토건사공능력평기액	2013년 순위	2012년 순위	순위 변동	소재지
금호산업(주)	1,917,160	18	16	▽ 2	전남
(주)호반건설	1,715,251	24	32	▲ 8	광주
우미건설(주)	643,379	45	47	▲ 2	전남
중흥건설(주)	398,991	63	77	▲ 14	"
금광기업(주)	395,929	65	57	▽ 8	"
남양건설(주)	315,718	74	52	▽ 22	"
(주)라인	306,380	76	85	▲ 9	"
남화토건(주)	218,688	91	110	▲ 19	"
동광건설(주)	211,599	94	104	▲ 10	"
남해종합개발	207,928	96	98	▲ 2	"

(자료: 대한건설협회)

중흥건설은 3989억9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4계단을 상승했으며 금광기업은 3958억2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계단 하락했다. 남양건설은 전년 대비 2계단 떨어지며 3157억1800만원의 시평액을 기록했

다. 이어 지난 4월 남흥건설에서 상호를 변경한 라인이 9계단 상승했으며 남화토건과 동광건설은 지난해 순위에서 각각 19계단, 10계단을 뛰어오르며 100위권에 진입했다. 남해종합개발은 2계단 상승, 전국 96위에 들었

다.

건설 업종별 공사실적으로 보면 조경 부문에서 호반건설이 기상액 590억원, 라인이 374억원으로 각각 전국 3위와 9위를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현대건설은 12조371억원으로 5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위와 3위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각각 11조 2516억과 9조4538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순위를 고수하며 '비3'을 유지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안정적인 실적과 경영상태를 유지한 업체는 순위가 상승했고,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들의 순위는 큰 폭으로 하락한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침수피해 지역 무인헬기 방제 지원

전남농협 무인헬기 공동방제단은 31일부터 이를간 다시농협, 공진농협, 득량농협, 나비골농협, 북신안농협 등 5개 농협 무인헬기가 참여한 가운데 장마와 폭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부발농협 관내 농업피해지역 방제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농협 제공>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 4년만에 첫 감소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은 총 5702만5000㎡(110만346동)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1%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은 정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제움터)을 통한 전체 준공면적은 5978만3000㎡(8만2260동)로 작년 상반기보다 16.1%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건축허가 면적의 경우 주거용이 작년보다 20.2% 감소하는 등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의료·문화시설 등) 모두 줄었고 착공면적 모두 감소했다. /연합뉴스

737만㎡로 17.9% 줄어 수도권보다 지방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착공면적은 4969만8000㎡(9만2102동)로 작년 동기 대비 5.3% 줄었다.

수도권의 착공 면적은 196만㎡로 10.8% 증가한 반면 지방은 471만 9000㎡로 13.8% 감소했다.

전체 준공면적은 5978만3000㎡(8만2260동)로 작년 상반기보다 16.1%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건축허가 면적의 경우 주거용이 작년보다 20.2% 감소하는 등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의료·문화시설 등) 모두 줄었고 착공면적 모두 감소했다.

6월 광공업 생산 광주 5.1%↑ 전남 7.0%↓

6월 중 광공업 생산 부문에서 지난 해 같은 달과 비교해 광주지역은 5.1% 증가, 전남지역은 7.0% 감소를 각각 기록했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13년 6월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광공업생산은 전기장비, 1차금속, 담배 등에서 감소 했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용 헤드폰 등에서 증가해 전년 같은 달보다 5.1% 늘어났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년 같은 달보다 0.9% 각각 증가했다.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6.1로 전년 같은 달보다 3.3% 증가하고 전달보다는 9.8% 감소했다.

6월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화학

전달보다는 0.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년 같은 달보다 5.7% 증가, 전달보다 0.4% 증가를 각각 기록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전년 같은 달보다 4.7%, 전달보다 1.5% 감소를 보였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9%, 전달보다 1.7% 각각 감소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전년 같은 달보다 3.4%, 전달보다 3.9% 각각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17.05 (+17.16)

▲ 코스닥지수 546.43 (+5.45)

▲ 금리(국고채 3년) 2.91% (+0.01)

▲ 원·달러 환율 1113.80원 (+3.30)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실 실내온도 3~5°C 겨울실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자연산 참옻을 직접 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옻 보양식전문점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친한 가격”

옻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토종참옻닭 40,000원
촌닭백숙 38,000원

함양옻닭 062-515-5757(옻칠옻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밸리원 뒤(구, 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

지도

금호고속 프리티켓 출시

코레일 내일로 티켓 연계 이용

금호고속과 코레일 내일로 티켓이 연계되는 프리티켓이 출시됐다.

금호고속은 30일 오는 8월1일부터 광주·전남권과 여수, 순천, 광양, 동광양·통영 노선에서 사용 가능한 '금호고속 프리티켓'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티켓을 사용하면 코레일 내일로 티켓을 가진 관광객들이 광주·전남지역을 여행할 때 금호고속 직행버스에 탑승할 수 있고, 여수, 순천, 광양, 동광양·통영을 제외한 다른 시도 연계 노선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프리티켓은 코레일 내일로 티켓을 들고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목포, 순천, 여수버스터미널 금호고속 영업사

무실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062-360-8500).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나주 화인코리아 사조그룹에 매각

본입찰 단독 응찰…내일부터 실사 인수절차 돌입

국내 대표 오리가공업체인 나주의 화인코리아가 사조그룹에 매각된다.

30일 압계에 따르면 화인코리아 채권단은 이달 종순 본입찰을 실시했으며 입찰에는 사조그룹만 단독 입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그룹은 지난 2011년부터 화인코리아를 인수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사들여 담보채권 170여억원 등 400억원 안팎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조그룹은 계약사업 확장과 화인코리아 부실채권(NPL) 회수를 위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

는 8월1일부터 화인코리아에 대한 실사를 벌여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0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던 화인코리아는 지난 1974년 나주에 금성축산을 설립, 오리가공업체로 사업을 키워나갔으나 지난 2004년과 2007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파산선고 뒤에도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휴대전화, 내년 8월부터 전자파 등급 표시 의무화

내년 8월1일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이 표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다음달 1일 자로 제정·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전자파 흡수율을 값이 0.8 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 W/kg

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한다.

해외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을 표기할 수 있으나 정부 주도로 의무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전자파흡수율(SAR)이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기준은 국제 권고 기준인 2W/kg보다 엄격한 1.6 W/kg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SAR이 1.6 W/kg를 넘는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연합뉴스